

강진청자축제 대박 나며 강진 관광지 덩달아 붐벼

축제 시작 하루 만에 주요 관광지 방문객 늘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초봄으로 개최 시기를 옮긴 청자축제가 평일인 개장식 첫날에도 1만 4천여 명이 방문하며 대박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덩달아 강진 관내 주요 관광지에도 방문객 수가 한 주 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가우도와 강진만생태공원, 다산초당 등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축제 전날인 2월 22일이 6,515명, 축제 첫째 날인 23일에는 7,00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전 2월 15일 방문객이 1,451명, 목요일이 1,484명에 비해, 서너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청자 축제로 인한 관광객 모객 효과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축제가 본격화되는 주말과 3.1절인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방문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돼, 강진 관광객 방문 수는 지속적으로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대거 관광객 모객을 통해, 인구 유입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광 강진 만들기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올해 강진의 첫 축제인 청자 축제를 시작으로, 봄의 시작과 함께 전라병영성축제, 금곡사벚꽃삼십리길축제, 월출산봄소풍축제, 수국축제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지난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지정해, 이전 143만 명에 머물렀던 관광객의 수를 256만 명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바 있으며, 민선 8기 강진원 군수 취임과 함께 지난해, 10월 5일, ‘A로의 초대, Again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선포식을 갖고 군과 군의회, 군민이 함께 관광객 500만 명 시대 달성을 다짐한 바 있다. /전운재 기자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초봄으로 개최 시기를 옮긴 청자축제가 평일인 개장식 첫날에도 1만 4천여 명이 방문하며 대박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덩달아 강진 관내 주요 관광지에도 방문객 수가 한 주 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강진군 제공

영암군, 원스톱 민원 서비스

영암군이 수요자 중심의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스톱 민원(건축·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정식 인허가 신청 전 약식의 심사를 받는 '사전심사청구제'와 관계 부서간 복잡한 협의 절차를 군민을 대신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해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신청 절차는 군민이 간략한 정보만(대지위치, 사용용도, 사용면적 등)을 온라인, 우편, 직접방문 또는 '영암군민 언제나 소통폰'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부서간 협의 절차를 거쳐 허가 가능 여부를 군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존 민원서비스 처리 방식에 '영암군민 언제나 소통폰'을 더해 실시간 접수처리가 가능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군민 고충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 관계자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만족감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 서산전투비행장 소음피해 현장 견학 실시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주민주도형 주민감사(이하 주민감사) 등이 지난 17일 서산전투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를 방문해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서산전투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위원장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은 말로 형언할 수 없고 한번 이전되면 남아 있는 주민들은 평생 소음에 시달린 다며 전투기 소음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는 1박 2일 체험해보라는 등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또한 전투비행장이 이전하고 나서는 땅값 하락뿐만 아니라 땅을 사려는 사람마저 없고 소음 피해 보상금도 집집마다 달라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투비행장 이전도

기 전부터 주민들이 푹푹 뭉쳐 반대의 한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문재 상임공동위원장은 “전투비행장 이전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와 주민 간 갈등에 대해 들으니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드시 저지해야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며 “오늘 강의에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범대위와 주민감사들은 지금보다 한발 더 뛰며 주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반드시 전투비행장 이전을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범대위는 앞으로 범대위원들과 주민감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전투비행장 이전 바로 알기 홍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목포시,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목포시가 2023년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보급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데, 상반기에는 승용·초소형 전기차 166대, 전기화물차 89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대당 지원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천430만원, 화물차는 1천95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거나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 등 사항은 무공해차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승용·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화물전 기차는 예산 소진시까지이다.

접수 후 결정사유가 없다면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지원가능 확인 요청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기후환경과(270-8667, 8675)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태 기자

함평,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개장 박차

함평군이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2월중 실시하고, 3월 말까지 입찰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 시설 임시 폐쇄조치에 따라 지난 3

년간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선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재개하고, 오는 6월중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는 함평읍 석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54억 원을 투입, 지상 2층, 연면적 1,122㎡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 1층 카페 및 편의점, 2층 해수탕(8실), 사우나 등을 갖추고 있어, 힐링과 휴양의 공간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가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신안, 음식점 핸드타월 호응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추진하는 음식점 핸드타월 교체·설치에 관광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관내 음식점 386개 업소 중 273개소가 수건에서 핸드타월로 교체·설치됐다고 밝혔고 지난해 8월 기준 34%의 설치율이 무려 4개월 만에 71%로 증가했다.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은 젖어있는 경우가 많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뿐 아니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주 손을 닦아야 하는 환경에서는 더욱 감염되기 쉽다. 이에 관내 모든 음식점이 핸드타월을 설치하도록 독려할 계획으로 신안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관리를 위해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